

한·중 합작 '팩추얼 드라마' 첫 시도

인물·사건·대사·사료에 바탕 둔 극 사실주의 사극 KBS 1TV의 5부작 드라마 '임진왜란 1592'

1592년 동아시아 최초의 국제전이자 7년 동안 벌어진 최대 전쟁 임진왜란을 그대로 조망하는 사극이 탄생한다. KBS 1TV의 5부작 드라마 '임진왜란 1592'(극본·연출 김한솔)다.

임진왜란 1592는 이름도 낯선 팩추얼 드라마를 표방한다. 인물과 사건 대사까지 사료에 바탕을 둔 극 사실주의 사극이다. 다큐멘터리와 드라마의 조합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

미국 드라마 밴드 오브 브라더스나 내셔널지오그래픽채널의 '초한지' 등 이미 외국에서는 잘 알려진 장르다.

우리나라 교양 프로그램으로는 사실상 최초의 시도다.

"실제 사료와 문헌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상상력을 발휘해서 만든 겁니다. 그 상상 역시 문헌을 바탕으로 한 합리적 추론을 통한 상상이지요."(김종석 총괄프로듀서)

임진왜란 딱 하루 전에 완성된 거북선과 거북선의 첫 전투에서 심각한 총상을 입은 이순신 장군의 모습, 좁은 수로 견내랑에서 펼쳐지는 거북선의 육박전, 조선 판옥선 부대의 대규모 학익진 등을 다룬다.

"세세한 부분까지 사실적으로 표현합니다. 다른 드라마에서 다루지 않았던 이순신 장군의 전락과 전술 거북선이 싸우고 움직이는 방법까지요.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마찬가지고요. 큰 사건이나 극적 긴장감보다는 아주 소소한 것까지 사실적으로



지난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IFC몰 CGV에서 열린 KBS1 드라마 '임진왜란 1592' 언론시사회에서 이순신 역 배우 최수종, 김한솔 감독 등 출연진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조명했습니다."(김한솔D)

특히 중국 CCTV와의 합작으로 제작년부터 주목을 받았다. 임진왜란 당시 동북아시아를 둘러싼 양국의 정세를 담는다. 중국에서도 동시 방송된다.

"중국의 13억 인구에 이순신 장군과 거북선에 대해 소개한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에 책임감을 강하게 느꼈어요. 중국에서도 이순신 장군에

대한 관심이 높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최대한 집중했습니다."(김한솔D)

특히 동북아시아 3국 중 일본을 제외한 만큼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비롯한 일본 상황을 고조하고 중립을 지키는 데 더욱 애를 썼다.

이순신 장군은 수많은 사극에서 열연한 탤런트 최수종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김응수가 맡는다. 한국 미디어 역사상 최

로 등장하는 인물이 거북선 물격장 '이기남'은 이철만이 연기한다. 이 외에도 거북선 제작자 '나대웅'(정진), 일본에 대한 복수를 꿈꾸며 배의 노를 짓는 격군 '박봉이' 아빠(조재완), 거북선의 눈을 맡고 있는 '탐방관'(백봉기) 등이 등장한다.

임진왜란 1592는 지난 3일 밤 9시40분 첫 방송했다.

/뉴스1



전북체육회, 제3차 이사회 개최

전라북도체육회(회장 송하진)가 전북체육회관 대회의실에서 제3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제97회 전국체육대회 출전 계획, 각종 규정개정, 대한체육회장 선거안 후보자 추천을 의결했다.

가장 관심을 끌었던 제97회 전국체육대회 출전계획은 송하진 지사를 단장으로 47개 종목 입원 300명과 선수단 1,300여 명이 출전하여 지난해 순위보다 한 단계 상향된 종합 9위를 목표로 출전하기로 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8월 31일자로 교직에서 퇴임한 노원식 이사(前전주생명고등학교 교사)에게 전북 물러 발전과 학교체육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감사패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날 이사회는 전북체육회 부회장인 김일재 행정부지사 주재로 진행됐으며 부회장 이사, 감사 등 26명이 참석했다.

/김민근기자

전북체육회, 7일까지 생활체육 지도자연수

전라북도체육회가 오늘부터 7일까지 3일간 부안군 하나루 가족호텔에서 14개 시군 생활체육지도자 및 사무국장, 전문지도자 170여명을 대상으로 지도자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지도자들의 현장지도와 전문지식 학습에 필요한 다양한 이론교육 및 실기 강의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운동재활 테이핑 자격증 교육' 실기 과정 이수 등을 통해 자격증을 제공하는 등 교육 참여율 향상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전라북도체육회 류창욱 지원육성처장은 "이번 연수가 지도자들의 체육 전문 내용을 학습하는 좋은 기회가 되어 동호인들과 함께 건강한 삶을 발전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민근기자

"수영장 내 수류 현상, 경기에 영향 미친다"

워싱턴포스트, "시계 반대방향으로 흐르는 수류로 레인 따라 손해·이익 본 선수 있어"

"2016 리우 올림픽 수영 종목에서 수영장 내 물의 흐름이 선수들의 기록에 영향을 미쳤다는 흥미로운 분석 결과가 나왔다.

워싱턴포스트(WP)지는 2일(한국시간) 미국 인디애나대학교와 이스트미시간대학이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해 "리우 수영장 내에 이상 수류 현상이 발견됐다"며 "시계 반대방향으로 흐르는 수류로 인해 레인에 따라 손해와 이익을 본 선수가 있었다"고 밝혔다.

앤드류 코넷 이스트미시간대학 교수와 인디애나대학교의 조엘 스테이거 수영과 학센터 국장 등의 연구진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수류 현상으로 선수들의 경기력에 영향을 준 것은 확실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리우 올림픽 수영장에서 시계 반대방향으로 흐르는 수류가 있었다.

이에 1번이나 2번 레인에 있던 선수는 출발 지점에서 반대편 끝으로 갈 때 기록이 좋았고, 반대편에서 출발 지점으로 돌아올 때는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기록이 느려졌다는 것이다.

실제로 800m와 1500m 경기에 출전한 노르웨이 선수 헨리 크리스티안센의 경기 결과는 이같은 분석을 뒷받침했다.

크리스티안센은 1500m 경기 예선에서 2번 레인을 배정받았고, A지점(출발 지점)에서 B지점(반대 지점)으로 갈 때의 성적이 B지점에서 A지점으로 가는 시간보다 0.28초 단축된 결과를 나타냈다. 8번 레인을 받은 결선에서는 이와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A와 B지점을 왕복해야 하는 경기에서는 수류의 도움과 저항을 받기 때문에 영향이 어느 정도 상쇄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4·5·6·7 레인을 배정받은 선수들에 비해 호흡 및 밸런스 조절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무엇보다 왕복이 필요 없는 50m 경기에서는 5·6·7·8번 레인에 있는 선수들이 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

50m 경기에서는 출발대의 반대쪽에서 경기를 시작한다. 50m 예선 준결승 결승 등에 임한 선수들의 기록을 분석한 결과 5~8번 레인에서 경기를 치른 선수들이 1~4번 레인에서 경기를 치르면 기록이 0.5%가량 느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리우 올림픽 50m 남녀 메달리스트 6명 가운데 3번 레인에서 경기를 뛰고 금메달을 차지한 앤서니 어빈(미국)을 제외하고 모두 4~8번 레인에서 경기를 치렀다.

WP는 "2013년 스페인 바르셀로나 세계선수권대회에서도 일어난 이같은 현상은 어떤 이유로 일어나는지 밝혀지지 않았다"며 "단거리 수영 종목은 0.1초 단위로 승부가 판가름 나기 때문에 원인 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머사 측은 이같은 지적에 대해 "우리는 올림픽 전과 대회 기간에 걸쳐 수영장에 커다란 물병을 띄워 물의 흐름을 관찰한다"며 "검사결과 승부에 영향을 주는 물의 흐름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민근기자

위대한 체·인·지의 시작

태권도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태권도 교육, 체험, 수련, 문화교류의 장

<http://www.tkdwon.kr>

태권도원 - 우리 세대에 우리가 만든 세계문화유산

올림픽 단일종목으로는 최초로 국제경기, 체험, 수련, 교육, 연구, 교류 등 태권도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공간입니다.

또한 전 세계인이 태권도를 통해 한국을 느끼고 한국의 일에 공동발견을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살아있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Taekwondowon
THE GREAT CHANGE

태권도원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 063) 320-0114